푸드트럭, 청년창업의 꽃에서 무덤으로

이 상 헌 외
창업 칼럼

언제부터인가 푸드트럭은 청년창업의 대표 창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가능한 업종이라는 인식이 통념화했다. 미국 맨하탄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거리축제형식의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한몫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창업을 독려하기위해 그동안 많은 규제와 허가의 까다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체계로 인하여 청년창업형태로 창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형 새로운 청년창업의 모델에 대한 기대와 성공모델이 되었던 미국시장의 성장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1841대다. 서울이 가장 많은 461대, 경기도 424대, 경상도 250대, 충청도 153대, 전라도 141대, 강원도 88대등으로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실은 데이터상으로만 영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등록된 주소지로 영업상황을 확인해보면 거의 운영을 하지 않거나 트럭 조차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대책이 필요함을 당연하다. 먼저 푸드트럭이 왜 청년창업의 대표 열정창업아이템으로 불려져야 만 하는가? 푸드트럭은 점포형 창업이 아닌 로드형&이동형 창업이기에 많은 영업적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실행력이 필요한 창업형태다.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창업형태에 가깝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모집하고 지원하는 창업대상은 거의 청년으로 국한되고 그들에게만 푸드트럭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업형태를 100% 푸드트럭만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행정적 절차기준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예를들어 서울시에서 공모한 밤도깨비 푸드트럭 행사에 창업기업 모집요강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푸드트럭으로 국한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형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자는 신청조차 불허하고 있다. 탁상행정과 현실을 무시한 공고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 야외에서 판매하는 푸드트럭의 계절별 영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장소적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한이 더욱 푸드트럭의 활성화가 어려운 환경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적 성공 가능한 사업형태는 점포형과 결합된 푸드트럭운영이 합리적이고 성공할 가능성 이 훨씬 높은 창업형태다. 계절적 비수기엔 점포형 창업으로 운영하고 축제나 행사 계절적 호환되는 기간에는 푸드트럭으로 이동형 운영의 경우가 훨씬 합리적 형태의 창업이다.

근본적으로 청년창업으로 국한되는 푸드사업 형태나 지원형태 변화도 시급하다. 시니어나 장년층 창업자에 대한 푸드트럭 문호를 넓히고 업종의 다양화도 음식업 아닌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으로의 활성화도 필요한 대책이다. 영업장소의 규제를 완화해서 고객과의 접근성과 흡입성 측면에서 안정적 상권확보가 절실함을 기본이다.

청년의 본질은 열정일 것이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승1부하기엔 창업시장이 총탄 없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고용부 '중대처벌법' 반박…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기자 수첩
원 승 일
〈정책사회부〉

올해 1월 19일, 본사는 ['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한 달 뒤 JTBC는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를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중대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처벌법 도입 후 산재 감축 효과는커녕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 그런데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중대처벌법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기사 보도 후 고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사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걸 말하는데 중대처벌법은 작동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알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아직 없다고 사문화라 한다면 그건 아닌 듯."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든 없든, 불명확한 처벌 기준과 장기화된 수사로 현장 혼란이 있든 말든, 법이 일단 시행됐으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용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JTBC 보도에 앞서 본지는 2월 1일 [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란 후속 기사를 냈다. 중대처벌법 제정 전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36~39년 스페인 내전을 겪은 뒤 전쟁의 허무함을 표현했다. 여기서 종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교회의 조종(弔鍾)을 말한다. 노동자가 죽은 후에 울리는 종은 허무하다. 사망사고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처벌법이 허무한 이유다.

본지는 사망 전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썼다. 그런데, 고용부의 반박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w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7일 (음 2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우자를 귀한 손님처럼 대우해보시라. **48년생** 아침부터 목마르다고 술을 마시면 어찌되겠는가. **60년생** 나를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반가워한다. **72년생** 남의 좋은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세상인심. **84년생** 승진에 신바람이.

37년생 하루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49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61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73년생** 배우자외 삼각관계조심. **85년생** 배움에는 세월이 없으니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대비.

38년생 돈을 자손이 지킬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50년생** 굳은살이 생겨서 아픈 줄도 모르겠다. **62년생** 철들만 하니 또 엉뚱한 일이 생긴다. **74년생** 부모님의 안부와 건강을 챙겨보자. **86년생** 근무 중인 12시에 음주는 곤란하다.

39년생 협력자를 먼저 구하고 일을 시작. **51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3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75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인데. **87년생** 씨를 뿌리면 수확은 거두게 마련이니 부지런히.

40년생 하늘이 맑고 푸르니 마음도 상쾌. **52년생**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 **64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76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88년생** 노력 앞에는 하늘의 복이 따르게 마련.

41년생 누구에게나 비춰주는 태양에 감사. **53년생** 자식이 좋은 일이 있으니 마음이 흐뭇하다. **65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용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 **77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89년생** 얽혀있던 돈 실타래가 풀린다.

42년생 변화무쌍한 날이니 대비를 철저히. **54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66년생**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 **78년생** 새로운 만남을 조심. **90년생** 이별로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일이 눈에 안 들어온다.

43년생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당신의 승리. **55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67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해보자. **7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91년생** 참을만하니 계속 엄살을 부리지 마라.

44년생 결심만 열 번을 넘게 한다. **56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68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80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자. **92년생** 피해주지마라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45년생 목표를 세우고 한걸음씩 나아가라. **57년생**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69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 **81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길이 보이게 되니 여유를 가져라. **93년생** 계산상 이익에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46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58년생** 최선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70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82년생** 신념을 갖고 기술력을 높이자. **94년생** 업무적으로 선배를 도우면 나도 도움 받게된다.

47년생 잘못된 얘기는 귀를 막고 듣지를 말아야. **59년생** 희망에 비싼 값을 지불. **71년생**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83년생** 집안청소를 서둘러서 행해보라. **95년생** 혼자 잘산다는 것은 천만에 직접간접으로 사람들의 협조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김상회의 四季

진도준 되기 ②

그렇다. 진도준 처럼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드라마 작가는 이미 사회적으로 있어온 투자 달인들의 예를 소재로 사용했다. 저평가된 땅을 저가에 일찌감치 매입하여 놓고 때를 기다린다. 사전에 어떤 개발 계획을 얻어서 부동산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향후 십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내다보고 기다린다. 당대가 아니더라도 자손에게 물려주면 될 일이다. 실제로 분당이 처음 뜨기 시작할 때 토박이 원주민들이 토정이지함의 자손들이었다고 한다.

토정은 유언을 남기기를 자손들이 지금의 분당 지역이었던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고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미래를 볼 줄 알았던 선견으로 짐작된다. 부동산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주식투자에 희망을 건다. 역시 저평가 되었거나 전도가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여 단시일 내에 대박을 터뜨려보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바라는 일이지만 그 타이밍을 알기도 어렵고 또 큰 재산을 만들 만큼의 종잣돈 마련도 쉽지 않다. 그러나 나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내부정보를 얻어 호재 발표전에 매수하여 큰 이득을 얻으며 혹 회사부실이나 손실과 같은 악재공시 전에 미리 매도를 하여 손실을 회피하니 주식시장에 있어 일반인들은 그저 개미군단일 뿐이다.

척척 재테크의 달인이 되기는 사실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AI이 대세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챗GPT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모르면 물으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의 향방이나 투자방향에 대해 엄청난 투자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환생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AI가 미래 예측치를 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진도준은 AI나 챗GPT일지도 모르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힘

문제출제 :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5			2			9	
7								2
	6		9		1		5	
	2		7		3		8	
	7		6		8		2	
				4				
9	3						4	1

		6	3		9	8		
8	4						1	5
	9						2	
		8				3		
	3	4	2		6	5	8	
	8						5	
		2	5		3	7		
	5						6	

정답

1	4	8	2	6	5	7	3	9
9	6	2	7	4	3	5	8	1
5	3	7	9	8	1	2	4	6
4	2	9	8	1	6	3	7	5
6	8	1	3	5	7	2	9	4
3	7	5	4	9	2	6	1	8
8	5	3	1	7	9	4	6	2
2	1	6	5	3	4	8	9	7
7	9	4	6	2	8	1	5	3

8	6	4	2	9	1	7	5	3
1	9	7	3	8	5	2	6	4
3	5	2	4	7	6	1	8	9
9	8	5	6	7	2	4	3	1
6	4	3	8	5	9	6	7	2
7	2	1	9	3	4	8	5	6
5	1	9	7	2	6	3	4	8
2	7	8	9	4	3	5	1	6
4	3	6	5	1	8	9	2	7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